광주 학생들, 튀르키예 한국 자동차공장 탐방

6개 직업계高 14명 오늘부터 14일까지

호원·현대차 등 견학…광주경총 지원

유학·재학생 교류…5·18 플래시몹도

김동찬 부회장 "해외 취업도 연계 추진"

광주 직업계고 학생들이 광주경영자총협회(이하 광주경총)의 도움으로 튀르키예 한국 자동차 생산공장을 찾아 글로벌 산업 역량을 키운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직업계고 취업동아리에서 활동해온 6개 학교 학생 14명이 7-14일 6박8일 일정으로 튀르키예 주요 산업현장을 탐방한다.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역기업 해외사업장 탐방 프로그램'의 하나로 튀르키예 호원오토모티브 공장에서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 자동차 부품 산업 견학 등을 한다.

현대자동차 튀르키예 이즈미트 공장의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도 갖는다.

또 이스탄불대학교에서 현지 유학생들과 교류하고, 부르사 기술대학에서는 재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제적 감각도 넓힐 예정이다.

이밖에 앙카라 한국공원 내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5·18민주화운동 세계화를 위한 플래시몹 등 역사·문화 체험활동도 펼친다.

직업계고교생들의 탐방 프로그램은 광주경총이 마련한 것으로,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힘을 보탠 첫 사례이다.

올해 3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김동찬 광주경총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취지에 공감한 광주경총이 실무 협의회를 열어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학생들의 숙박비·식비 등 체류 경비와 해외 사업장 섭외 등을 광주경총에서 도맡았다.

김동찬 광주경총 부회장은 "탐방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갖도록 하겠으며 우리 지역 직업계고교 학생들의 해외취업과도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진로·취업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경총과의 협업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협력 우수 사례"라며 "학생들이 해외 산업현장 탐방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도 키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다이 기자

광주 '수족구병' 급증

백신 없어 손씻기 등 예방 힘써야

최근 광주 지역 기온이 상승하면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수족구병 등)이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수족구병 검출률은 6월 셋째 주 28.6%(7건 중 2건)에 불과했으나 일주일 후에는 100%(11건 중 11건)로 급증했다.

7월에도 높은 검출률이 지속됐다. 첫째 주 93.3%(15건 중 14건), 둘째 주 86.7%(30건 중 26건), 셋째 주 76.0%(25건 중 19건), 넷째 주 83.3%(24건 중 20건) 등 한 달 평균 검출률이 84.0%에 달했다.

수족구병은 일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0-6세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전파 경로는 감염자의 대변 또는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콧물 등)이나 바이러스로 오염된 장난감, 식기, 식품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대표적 증상은 손·발·입안에 생기는 수포성 발진과 발열, 두통,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있으며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탈수로 이어질 수 있다.

수족구병은 약물치료 후 7-10일 내 대부분 회복되지만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간염 등 중증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은 현재 예방백신이 없고 특별한 치료제도 없다"며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인 만큼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철저한 손 씻기, 장난감 및 환경 소독 등 개인위생과 환경위생 관리가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폭염에 폐지 리어카 쉽니다 광주 서구청 착한동행팀 직원들이 6일 구청 야외광장에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맡긴 리어카를 보관 및 정리하고 있다. 서구는 8월 한 달간 리어카를 맡긴 어르신들에게 쉼 지원비 1인당 최대 50만원과 함께 서구 대표 복지 브랜드인 천원국시 이용 쿠폰을 제공하는 서구 고액기부자 모임 서구아너스의 '쉼이 있는 여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광주·전남 내년 공립 교사 738명 뽑는다

광주 82명·전남 656명…올해比 축소

광주·전남 지역 내년 공립학교 교사 임용 규모가 축소된다.

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내년 광주·전남 신규 교사 임용 예정 인원은 총 738명이다.

광주는 82명, 전남은 656명이다.

초등교사는 광주 30명, 전남 131명으로 올해 대비 각각 33.3%(15명), 15.5%(24명) 줄었다.

중등교사는 광주 17명, 전남 357명이 사전 예고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광주는 18명에서 1명이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전남은 419명에서 357명으로 줄어 14.8%의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유·초·특수(유·초) 교사는 9월10일,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는 10월1일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총 1만2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로 총 3천113명을 비롯해 ▲중등 4천797명 ▲유치원 668명 ▲특수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담 222명의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내년과 올해 사전예고 선발 인원을 비교하면 초등은 26.7%, 중등은 0.4% 각각 줄었다. /김다이 기자

호남권생물자원관, 섬 생물 2만2천여종 확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섬 지역 자생생물 조사·확보·발굴 연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섬에 서식하는 자생생물 2만2천84종을 확인했다.

6일 자원관에 따르면 도서생물자원연구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섬 지역 생물 종목록' 구축을 통해 1만9천237종을 확인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2천847종을 추가로 밝혀내며 총 2만2천84종의 섬 자생생물을 기록했다.

주요 서식 생물은 곤충류 6천683종, 세균류 3천273종, 관속식물 3천6종, 무척추동물(곤충 제외) 2천501종 등이다. /목포=정해선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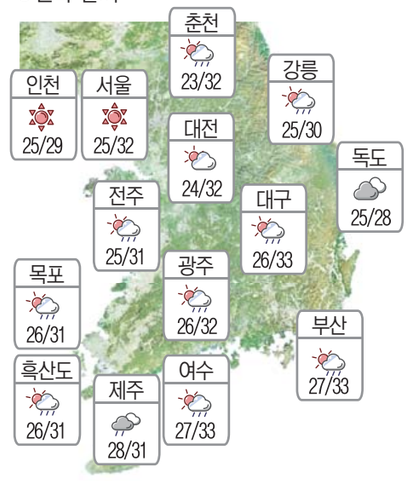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5:46 해짐 19:30 달뜸 18:25 달짐 03:03

●광주·전남 날씨

광주	가끔비	26/32	장성	가끔비	25/32
목포	가끔비	26/31	보성	가끔비	24/32
여수	가끔비	27/33	함평	가끔비	26/32
나주	가끔비	25/33	순천	가끔비	26/33
완도	흐리고비	26/33	영광	가끔비	26/31
구례	가끔비	25/32	진도	가끔비	25/31
강진	가끔비	26/33	흑산도	가끔비	26/31
해남	가끔비	26/32	고흥	흐리고비	26/34
광양	가끔비	26/34	담양	흐리고비	25/32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0.5-1.5	0.5-1.0
	먼바다(북)	0.5-2.0	0.5-2.0
	먼바다(남)	1.0-3.5	1.0-2.0
남해서부	앞바다	0.5-1.5	0.5-1.0
	먼바다(동)	1.5-3.5	1.0-2.0
	먼바다(서)	1.5-3.5	1.5-2.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0:52	06:06	여수	07:37	02:11	녹동	08:21	03:10
	12:30	18:12		20:36	13:41		21:21	14:34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40 감기 조심해요

세 차 30 차 내부정돈이 좋아요

빨 래 50 실내건조 좋아요

운 동 40 실내운동 즐겨요

●주간 날씨

8일(금)	9일(토)	10일(일)
(23/32) 맑음	(24/30) 흐림	(24/30) 흐리고비
11일(월)	**12일(화)**	**13일(수)**
(25/31) 흐리고비	(25/30) 흐리고비	(25/32) 흐림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광경과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흥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고흥군 Goheung-gun 광고문의 : 062)650-2099